

## 사적(私的) 관점에서 한나 아렌트 읽기

Kathleen B. Jones의 *Diving for Pearls* 서평

김선욱\*

한나 아렌트를 소개할 때 20세기의 탁월한 ‘유대인 여성 정치사상가’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된다. 아렌트는 분명 유대인이고,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정치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도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그녀의 정치사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의 대상이다. 아렌트는 여성주의(feminism) 학자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아렌트는 남성의 에스콧트 받기를 좋아했는데, 비 오는 날에 남성이 우산을 씌어주거나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까지 바래다주는 매너에 기뻐했다. 아렌트는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아렌트의 생전에 그녀의 정치사상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성주의자들이 아렌트 사상 독해를 통해 사상적 활로를 찾은 것은 아렌트 사후의 일이었다.

“아렌트가 여성이므로 아렌트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었다. 아렌트는 자신을 여성의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의 정치사상이 그런 관점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캐서린 존스의 『진주

---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를 찾아서』는 이런 나의 입장에 대해, 아렌트의 여성적 독해는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저술이었다.

존스는 여성학자로서 학문적 커리어를 추구하면서 아렌트의 저술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것을 사적인 눈으로 읽고 ‘느낌’으로써,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이혼한 자신의 부모와의 친밀하면서도 거북스런 관계를 아렌트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기도 하며, 자신의 남편들과의 관계를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기도 한다. 존스는 자신의 남편을 따라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여,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오직 종교적으로만 이해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과는 달리 혈통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리고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깨닫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의 길로 나아간다. 두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 사실을 말하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아렌트는 많은 자료를 남겼고, 그 자료들은 미의회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존스는 그 자료들을 직접 ‘만져 보기 위해’ 워싱턴 DC로 갔다. 아렌트에 관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렌트의 흔적들과 접촉하기 위해서”(p.172) 였다. 모친의 죽음을 아렌트에게 알리는 전보를 존스는 거기서 자기 손에 쥐어본다. 지금 아렌트의 유고들과 자료들은 모두 전자화 되어 컴퓨터 영상을 통해 일일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영상을 보기 위해 일부러 워싱턴 DC로 갈 필요가 없고 유고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와 아렌트의 무덤이 있는 뉴욕주의 Bard College 등에서 미의회도서관 자료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존스는 사서에게 자신이 그 전자 자료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싶다고 요청한다. 약간의 설득의 과정을 거쳐 결국 원자료가 든 박스를 받아 그 전보를 손에 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마르타(아렌트의 모친)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응시했다. 어느 때 보다도 나의 이 죽은 친구에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나는 내가 가장 접촉하고 싶었던 것이 한나의 개인적인 사물들임을 깨달았다. 마르타가 한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담기 위해 사용한 공책, 그리고 한나의 여권들과 같은 것 말이다. (p.184)

이런 접촉(touch)이 중요한 이유는 접촉이 “우리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능력”이며, “만일 내가 어떤 이를 접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녀가 만졌던 것을 만지면서 내 손에서 그 물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금 따듯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p.172)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렌트의 사상만이 아니라 그 사상을 구체화했던 아렌트의 몸으로 살았던 삶을 느끼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렌트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길을 존스는 얻는다. 이런 해석의 길이야말로 여성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남성들에게서는 비교적 멀리 존재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존스의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아렌트의 전기들에 대한 평론이다. 엘리자베스 영-브루일이 쓴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홍원표 역, 인간사랑 2007)는 아렌트에 대한 대표적인 전기로 간주된다. 그런데 아렌트의 생전에 그와 깊은 교우관

계를 맺었고 또 사후에 아렌트의 유산 및 장례 책임까지 맡았던 메리 매카시(Mary McCarthy. 매카시는 아렌트의 시신을 이스라엘로 옮겨 매장하자는 아렌트 사촌의 주장에 반해 시신을 화장을 하여 바드 칼리지에 있는 남편 하인리히 블뤼허의 무덤 옆에 안장하였던 인물이다.)는 이 책이 아렌트의 삶에 대해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고 혹평을 하였다. 이 전기는 철학적 전기로는 가치가 있지만 개인적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서술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영-브뤼엘의 전기가 출간된 이후에 특히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해 새로이 저술하려했던 엘즈비에타 에팅거에게 매카시는 이런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엘즈비에타 에팅거의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황은덕 역, 산지니, 2013)는 아렌트가 친밀하게 지냈던 이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출간되어 나왔을 때 이 책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아렌트를 가까이 접했던 이들은 이 책이 내용에 불만을 가졌고 비판적이었다. 아렌트의 마지막 조교였던 제롬 콘은 나와의 대화에서 에팅거가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영-브루엘의 전기에 대한 제롬 콘의 의견은 매카시의 것과 동일했다.) 그리고 독일의 아렌트 학자 우술라 루즈와 함께 에팅거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불쾌감을 피력했다. 예의 없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에팅거는 1924년 우즈에서 태어났고 1940년에 바르샤바 게토로 가족과 함께 강제이주를 당했다가 게토에서 마지막 봉기가 일어나고 파괴되기 직전에 그곳을 탈출하여 신분 위장을 한 채 숨어 지냈다가 종전을 맞이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뒤에 그녀는 바르샤바 대학을 다니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교수인 만프레드 락스(Manfred Lachs)와 결혼을 하고 1962년에 슬하에 마이아(Maia)를 낳는다. 이후

폴란드 정부로부터 국가정보원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지만 이를 거부하는데, 이후 이 일에 대해 정부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딸과 함께 들어서 1967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래드클리프 칼리지 연구소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여 이후 MIT에서 인문학 교수로 지내게 된다.

자신의 나이 많은 남편은 과거 나치가 폴란드 유대인을 학살할 때 조력했던 자였지만, 자신은 그와의 병적 사랑에 빠졌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에팅거는 생각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대해 죽을 때까지 의존적인 관계를 계속했던 것은 아렌트가 거의 비도덕적인 수준에 까지 이른 것이라고 에팅거는 판단했다(pp.203~4). 에팅거의 이런 판단이 저술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존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다.

게다가 에팅거의 저술은 폴란드 출신 유대인과 독일계 유대인의 적대적 관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존스는 판단한다.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을 때 동부에서 유대인들이 독일로 유입되는 것을 독일계 유대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차별하는 태도로 대했던 적이 있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러시아 등 동유럽의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 19세기 중엽부터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박해를 피해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팔레스타인에서 일구어 낸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들은 독일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누리다가 박해를 당해 뒤늦게 독일을 떠나야 했던 독일계 유대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존스는 이를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인 오스트유덴(Ostjuden)과 독일 출신의 유대인인 예케스(Yekkes) 사이의 “오래된 갈등, 혹은 적대감”(p.206)이라고 표현한다. 에팅거는 오스트유덴이고 아렌트는 예케스였던 것이

다.

아렌트와 하이데거에 대해 단지 철학적인 일뿐인 영-브루얼의 해석과, 자신의 편견들로 점철된 에팅거의 해석을 모두 걷어 버린 뒤 존스는 여성인 자신의 눈으로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렇게 사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은, 결국 아렌트를 다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와 새로운 길의 모색 가운데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다.

캐서린 존스의 개인의 삶이 아렌트를 통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의 기록의 독서는 남성인 나의 저술들과 여성의 눈으로 쓰인 저술 사이의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 주는 흥미롭고도 귀중한 경험이었다. 존스는 이 저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에팅거가 남긴 문헌들과도 접촉을 하였다. 에팅거는 자신의 저술을 위해 가졌던 수많은 인터뷰 자료들을 하버드 대학의 슬레진저 도서관에 남겨두었다. 나도 그곳을 찾아가 에팅거 인터뷰 자료들을 접해보려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팅거의 딸 마이아의 허락증명서가 필요했다. 다행히 도서관 사서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아 연락을 취했더니 곧바로 수락 메일을 보내주었다.

<에팅거 페이지>라는 이름이 붙은 기록물들에는 수많은 인터뷰 자료 외에도 아렌트의 유품 일부도 있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아렌트의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아렌트의 편지와 사진도 있었다. 특히 아렌트의 남편 블뤼허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아렌트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1970년의 사진일 터이다.

캐서린 존스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현직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 아렌트의 여러 저술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녀는 교사들 그룹을 이끌고 아렌트 무덤이 있는 바드 칼리지를 탐방하여 아렌트 느끼기와 아렌트처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함께 연습하곤 한다.



〈사진〉 남편 시신 앞에 선 한나 아렌트,

출처: *Elzbieta Ettinger Papers, 1922-2001*, MC579, folder 23.10, Schlesinger Library, Radcliffe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USA

